

##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

권재일  
서울대학교

**Title:**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in Central Asian Korean*

**Author:** *Kwon Jae-i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eparate existence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in Central Asian Korean and explore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mainly case markings and sentence endings, of each language. The data include audio recordings of my own field research, literary works, articles and editorials selected from Lenin Kichi. Main poin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confirmed that both casual spoken language and formal written language of Central Asian Korean are in use together.*

*Secon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exist between case markings of spoken and written Central Asian Korean. Characteristics of the spoken language include the following. '-i' is the only nominative case marker. '-eu/leu' are main accusative case markers. Genitive case markers are rarely used. '-ga' is used as a comitative marker. In contrast, in written language, '-i/ga' are used as the nominative case markers, a genitive case marker '-euy' is used, and '-gwa/wa' are used as comitative markers.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written Central Asian Korean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Modern Korean case markings.*

*Third, sentence endings of spoken and written Central Asian Korean also show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spoken language, '-guma' and '-seumdu' are used as honorific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ndings, respectively. In written forms, '-seupnida' and '-seupnikka' are instead used as honorific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endings, respectively. Interrogative endings '-neunya' and '-ni' are used only in written language, not spoken langu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ritten Central Asian Korean are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Modern Korean sentence endings.*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Professor Nelly Pak who gave me the opportunity to have an interest in Central Asian Korean and helped me very much during my field research.*

**Keywords:** *Central Asian Korean, spoken Central Asian Korean, written Central Asian Korean, Modern Korean, case marker, declarative ending, interrogative ending*

## 1. 머리말

중앙아시아 지역, 구체적으로는 옛 소련이었던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 살고 있는 한민족을 고려사람이라 한다. 이들 고려사람들이 써 오는 말을 고려말이라 한다. 언어학적으로는 한국어의 한 방언, 또는 한국어의 다른 지역 방언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방언이다. 고려말은 대체로 함경도 방언(특히 함북 방언)을 이어받은 것이다. 먼저 현지에서 조사한 구술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권재일 2010:179-).

- (1) a. 우린데 가깝게 큰 산으 없습구마. 그리 높은 산으느. 그래 어찌 우리 산으르 가는가 하이끄드나예, 나물 캐러. 그래 산 밑으르 땡겠지.
- b. 나물은 내 스 잘 기억지 못합구마. 까끄 에또 가시, 보또므, 무스 보 선나물이라든지 그런 일이 이런게 나. 그래 그저 어 이 전장~ 시기 무스 그저 뽕 뽕 풀은 다 캐 먹었었구마, 우리. 무슨들레, 이 셔투리, 무스 것두 뽕꼬 아이 먹었겠습두?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나온 고려말 문헌, 특히 신문 기사와 그 신문에 실린 문학 작품들을 보면, 위와 같은 구술 자료의 말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필영(2008)과 권재일(2010)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음 자료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간되던 신문 “레닌기치”에 실린 글이다. 각각 대화 자료와 비-대화 자료인데 (2)가 대화 자료, (3)이 비-대화 자료이다. 대화 자료란 소설이나 희곡 작품에 담긴 대화를 말하며, 비-대화 자료란 신문 기사문, 논설문, 문학평론 등을 말한다.

- (2) a. 내가 쾌활하거나 우습은 이야기를 잘 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습은 일들이 많으니 그런 것이지요.
- b. 왜 가만있니? 너 말을 모르는구나. 야는 카사흐말을, 자는 우이구르말을, 또 이 애는 독일말을, 우린 다 자기 말을 아는데 넌 몰라... 애들아, 그렇지?
- (3) a. 인민은 자기의 언어로 하여 불멸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가장 큰 재부인 자기 언어를 준 자기 인민 앞에 지닌 자손으로서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
- b. 이상에 우리가 개성화한 감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결코 작자의 개성, 혹은 어떤 다른 개성에 대하여만 특증되는 감정을 의미함이 아니다. 반대로 감정은 반듯이 결국 전형성을 가져야 된다.

이를 통해 보면, 중앙아시아의 고려말에는 일상언어인 구어와 격식언어인 문어가 함께 존재하여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 각각의 문법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법 특징은 격조사와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글에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문어 자료는 대화 자료와 비-대화 자료로 나누어 살핀다.

(4) 구어 자료

권재일 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문법”(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의 ‘부록: 고려말 전사 자료’.<sup>1</sup>

(5) 문어 자료

“레닌기치”<sup>2</sup>

김필영 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 2. 고려말과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

### 2.1. 고려말의 성격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사람들이 써 오는 말이 고려말이다(아래 기술은 전적으로 권재일(2010)에서 인용한다). 고려말은 대체로 함경도 방언(특히 함북 방언)을 이어받은 것이다. 함북 방언은 내부적으로는 육진 방언과 길주·명천 방언으로 나뉘는데, 고려사람들은 각자의 성장 배경에 따라 이 두 하위 방언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고려말을 조선말이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고려말이 더 일반적이다. 1920년대 이후 옛 소련 거주 한인들의 출판물에서 한국을 ‘고려’라 지칭하고 있고 소련의 한민족을 ‘소베트 고려민족’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더욱이 1930년대 이후 교과서에서는 일관되게 ‘고려어’ 또는 ‘고려말’이라고 지칭하였다.

러쓰 킹 외(1992:90-)에서는 고려말의 성격을 언급하면서, 고려말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는 언어 문화적으로 단절된 채 그들 특유의 언어적 특징을 보존하고 있으며, 문어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음을 지

<sup>1</sup> 이 전사 자료는 김주원 교수, 고동호 교수 그리고 필자가 2006년 12월 - 2007년 1월에 조사한 것으로, 자료제공인은 노가이 안나(Nogaj Anna Afanacievna) 여사이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거주, 1925년생이다. 12세까지 원동 하산에 살다가 1937년 강제 이주해 왔다.

<sup>2</sup> “레닌기치”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간된 고려말 신문이다. 1938년 5월 15일에 “레닌의 기치”로 창간되었다. 그 이후 “레닌의 기치”를 거쳐 “레닌기치”로 바뀌었으며(1952년), 1990년 12월 31일자로 폐간되고, 1991년 1월 1일자로 “고려일보”로 창간되었다. “레닌기치” 자료를 제공해 주고 고려말 자료에 도움을 준 김필영 교수께 감사한다.

적하였다. 그리고 문어는 1937년 이전 옛 소련 원동 지방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격식언어라 하였다.

박넬리(1991 및 2005)에서는, 고려말은 1800년대 후반에 러시아 원동 지방에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18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육진 방언 사용자들은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9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명천·길주 지방에서 연해주로 계속된 이주로 인해 방언들이 섞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일종의 코이네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 2.2.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

필자는 현지에서 고려말을 조사하면서 고려말 보유자가 고려말의 두 모습, 즉 일상언어인 구어와 격식언어인 문어를 간직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고려말을 구어 고려말이라 한다면, 글을 쓸 때와 공식적이거나 격식적인 대화를 할 때 쓰는 고려말을 문어 고려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자료가 구어 고려말에 해당한다.

- (6) 닭으 제 뿌리구 왔습구마.<sup>3</sup> 어찌 제 뿌리고 왔는가이끄드나 으이 우리르 불시르 이주시켰습구마. 기래다나이 미쳐 어찌 새 없지. 어 내 생각 아이 나지만 돼지느 어찌 했는지 모르겠. 잡았는지 어찌 했는지. 아 쇠 있는 거느 국가르 받치고 왔스. 국가르 주고 왔습구마. 기래서 음 닭으느 그, 우리 나올 직에 에따 그, 뽀시예트 어느 메르 그게 에또 까끄 예고. 죄인들이 이레 죄를 짓고 가 가 갇히쥬~임두? 그런 사람들으 내 보냈습드마. 우리르 이거 이주르 시기는 거. 쇠수레들으 물고 거기르 음 뽀시예트까지 가게. 기래 그 사람들마 부뜰어 먹었지 모르지 어찌했는지. 기래고 쇠느 바쳤습구마, 국가. 기래 바친 거 삼십칠연도에 여기 와서 까삭스탄와서 어 그거 마 에매찌나 탔는지 돈 탔습겠구마. 돈 타구 우리르 무스그 좃는가이끄드나 이거 그게 바친 그글르 해서 아무래 곡식도나 그거 해 좃는지 가루르 같그 같그 나베르나 한 이십 마대씩 이레 타서. 그거 먹구 살았습구마. 고마 고마와서.

이에 대해서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문어 고려말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7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조사한 자료제공인 장영진 선생과의 대화이다. 장영진 선생은 조사 당시 90세인 1917년생으로, 원동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부임을 앞두고 1937년 강제 이주되어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그동안 조선어 교사, 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은퇴한 분이

<sup>3</sup> 이 글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전적으로 권재일(2010)에서 기술한 구술 자료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물론 자료제공인은 안나 노가이 여사이다.

다. 이 분과의 대화에서 처음에는 이 분이 서울에서 온 조사자를 만나, 고려말이 아닌, 서울말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였지만, 이 분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에서 배우고 사용하는 교양 있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어 고려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강했다. 조사자가 구어 고려말을 해 주기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강력히 묵살하였다. 그리고 이 분이 사범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조선어 교사로서 가르친 격식언어인 문어 고려말(이 분 표현으로는 ‘교양어’)은 적어도 소련 해체 후인 1990년 이후 한국의 기업인, 종교인이 이곳에 들어와 전파한 현재 서울말이 아님이 확실하였다. 아래 대화에서 ‘권’은 필자이고, ‘장’은 장영진 선생이다.

(7) 권: 사시는 데가 어디니까?

장: 자식들이 따시켄뜨 거반 살고 셋째 아들이 러시아 땅에 가서 삽니다.

권: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 고레말로는 어, 러시아 땅에 가서 살고 있소, 살고 있습구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두?

장: 예.

권: 예. 그런 말로 해 주셔야 제가 여기 잘 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며는 이제 우선 그, 원동 사실 때 어디서 사셨어요? 원동에서는

장: 원동, 아, 아, 하바롭스키 벤강, 뿌리모리 뿌리모레 연해주 수천 구역 어, 도두구란 촌에서 난 탄생했습니다. 기래 실길 때는 어 스킨도브 구역 연해주 스킨도브 구역 어 그, 베농장 빼뽀라까란 거기서 차에 실게서 여기를 떠나왔지요.

2008년 1월 카즈흐스탄 알마타에서 조사한 다른 자료제공인과의 다음 대화도 살펴보자. 자료제공인은 신외라 여사인데, 그 분은 1929년생으로 8세 때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분으로 조사 당시 79세였다.<sup>4</sup> 신외라 여사가 쓰는 말, 역시 서울에서 온 기업인이나 종교인들로부터 배운 말이 아닌 원래 알고 있던 고려말이다. 조사에 동참했던 박넬리 교수가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말해 보았지만, 자료제공인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8) 신: 원동~에서 들을 때 내가 야듭 살 때였습니다. 야듭 살이, 이십구 연 생입니다, 내가.

권: 이십구년생 음, 그러며는 원동에서 부술기 타고 침에 어디로 왔어요?

<sup>4</sup> 신외라 여사는, 원동에서 출생하여 8세 때인 1937년도에 카자흐스탄 우스토펬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67년간 살다가 최근 알마타로 와서 산다. 1-2년 정도 교육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과 농사 분조장의 일을 맡아 왔으며, 농업영웅으로 많은 훈장을 받았다고 한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주로 고려말을 사용한다.

신: 그래 와서 첨에는 꼭수라는 데로 왔었습니다. 그래 거기 와서

박: 어허허. ‘읍니다’라고 하지 말고 딱 고레말로.

권: 고레말로

신: 글썸 꼭수라는 그런, 이런, 스펀스 꼭수, 정거장~이 그런 데 있습니다. 기래 거 와 내래서 우리르 바라끄르 줍드마. 기래 바라끄르 주이꺼데 거게 심을루 그, 짐으 동제 가제 오던 짐으 가주고서 리 어간으 베으 막구서리 그러고서리 집집마 마당 그, 바라끄 이렇게 살었어. 그래 그해 동삼 나구 그래구 그 이듬해 봄에 가서 어 따꿀막으 치고서리 그래고서리 살다가서리 그 담에는 짐으 피자장~ 재빌르 맨들어서 그래 피자장~ 쳐서 짐으 날 날맞이르 다섯 여섯 개씩 이레 저서 사람들이 이레 저서 거기르 다 이레 이새르 해 나갔지. 그 막개이 그런 바라끄 저 따꿀막에 있다거서리 기래 거기 나가서 그래 살멘서리 조합이 일하지르. 기래고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들 가주고 집에서 그저 그렇게 고생하구 아버지는 기냥 그저 앓구 그저 그거백에 내 골 속에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조사한 또 다른 자료제공인 정안나 여사<sup>5</sup>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어와 문어의 존재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다음 대화에서 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분은 조사 기간 내내 ‘명심하고’ 교양어를 사용하였으며, ‘사투리’와 ‘명심하고 써야 할 말’을 구분하고 있었다. 소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철저히 교육 받았다고 하였다.

(9) 권: 그, 아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원래 고레말에는 머머 했습구마 했습구마 또는 했소 이런 말을 하는데 아메는 왜 그런 말을 안 씩니까?

정: 그거는 방언~이라 해서 어, 집안에서 그저 하는 말이 돼서 내 그 말으 아이, 멍심하구 아이합니다. 집에서느 다 아:들이 기렸습구마 어 이레라 저레라 이렸습니다.

권: 예. 그러며는 언제부터 밖에서 이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정: 어, 그 전에는 글 이를 직에느 어 다 내 그러 이상 사람들가 다 존경스럽게 말두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어, 저렸습니다, 오 십시오, 가십시오, 이래.

권: 원동에서도요?

정: 다. 공계서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권: 아, 그, 학교서는 머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정: 다. 그렇게 했습니다.

<sup>5</sup>정안나 여사는 1921 년생으로 역시 원동에서 1937 년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 왔으며, 10 년제를 졸업했으며, 그동안 우체국 및 학무국의 경리 담당자로 일했다.

- 권: 원도~에서도 집에서는, 그렇게 말했고 어시들한테 머했스구마, 머했습두?
- 정: 그래 보튼 다, 그랬습구마, 그 전에는 아바임두? 아멤두? 어. 동상 들 오머 니 왔냐 아들. 서햐뎀두? 인사 이롭게 했습니, 인사르.
- 정: 핵교 가서느 아이 그래, 다 선생니 앞에서느 어 모 체대루 말해읍, 니다. 어, 선생님 그렇게 싹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저래 말했습 니다. 다,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 정: 핵교서 배운 말대루 우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 아이 했습니다.
- 정: 그렇게 니 말하므 느 말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샘이. 니 말, 고레글 모 글으 못 배왔다우. 그레다 나이 그거느 우리 조심하구. 그렇게 맹심하메. 맹심하구 이 말 하머 어떻겠는가, 이렇게 궁리르 하텐서르 에 말하메.

이상에서 볼 때, 높임의 서술형어미와 의문형어미가 구어와 문어 고려 말에서 확연히 구분되었다.

(10) 고려말의 높임의 서술형어미와 의문형어미

	서술형어미	의문형어미
구어 고려말	-습구마	-습두
문어 고려말	-습니다	-습니까

또 한 가지 관련된 사실이 있다. 고려사람이 쓴 소설 작품을 보면 대화 체의 문장이 구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체로 문어 고려말을 사용하고 있다. 1950-60년대 창작된 고려인 소설 작품에 나타난 종결어미를 분석한 김필영(2008:94-95)에 따르면 소설 작품에 나타난 고려말 대화의 평서문 과 의문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1) a. 평서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ㄴ/는)다’, ‘-라’, ‘-지’; 하게체는 ‘-네’; 하오체는 ‘-오/소’; 합쇼체는 ‘-(비니)다’, 해체는 ‘-아/어’; 해요체는 ‘-아/어요’와 ‘-지요’가 있다. ...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쇼체 종결어미인 ‘-(스)꾸마’는 소설 구어체 표현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 b. 의문형 종결어미로 해라체는 ‘-느냐’, ‘-니’, ‘-니’, ‘-지’; 하게체는 ‘-는가’; 하오체는 ‘-오/소’; 합쇼체는 ‘-비니까’; 해체는 ‘-어/아’; 해요체는 ‘-어/아요’와 ‘-지요’가 있다. ... 실제 고려말 담화에서 자주 쓰이는 합쇼체 종결어미인 ‘-ㅁ두’나 ‘-습두’는 소설 구어체 표현

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설 작품의 대화는 그 언어의 생생한 실제 구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 작품에서는 아무리 생생한 대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소설 작품에서 고려말 구어를 쓰지 않고 문어를 쓴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사실로 판단하건대, 중앙아시아 고려말에는 일상언어인 구어와 격조언어인 문어가 구분되어 사용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격조사의 대조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격조사를 대상으로 대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함께 대조해 본다.

#### 3.1. 주격조사

먼저 주격조사부터 살펴보자. 구어 고려말에서 주격조사는 ‘-이’가 대표적이다. 선행하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모두 ‘-이’이다. 다만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 매우 드물게 ‘-가’가 쓰인 예가 있다. 다음 문장 (12a)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가 쓰인 예이고, (12b)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가 쓰인 예이고, (12c)는 ‘-가’가 쓰인 예이다. 한편 높임 조사 ‘-께서’는 없다.

- (12) a. 그 아들-이 글이르구 다 공부 필하고스레 여기서 일하게 됐지.  
 b. 오백호-이 들어와서 그 담에 그, 주미냐르크서 아무 두 길로 메트르 내려가 밭이 있지므, 벌판에.  
 c. 내 아무것두 모르는데 내-가 무시라 하겠는가?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의 주격조사에는 ‘-이’와 ‘-가’가 함께 나타난다. 다음 문장 (13a)는 대화 자료에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가 쓰인 예이고, (13b)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가’가 쓰인 예이다. (14a)는 비-대화 자료에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가 쓰인 예이고, (14b)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가’가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주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같다.

- (13) a. 로인-이 우수한 이야기를 잘 하시며 또 대단히 쾌활한 분이라고 동무들이 말들 함테다.  
 b. 다시 말하면 수소-가 새끼를 낳는단 말이오.

- (14) a. 그 사람들은 ...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도로 실어가 달라고 애원 하였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그런 한지에서는 ... 견뎌 내지 못할 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b. 다만 이러한 말들로써만 시-가 쓰이었다면 시-가 생기를 잃으며 새맛이 나지 않으며 새 색채, 명요성을 가지지 못한다.

구어 고려말에서는 쓰이지 않는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가 문어 고려말에서는 쓰인다.

- (15) 왜 하느님-께서-는 신기한 재간을 가진 바느질꾼인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도 무정하게 대하셨습니까?

### 3.2. 목적격조사

다음 문장 (16)은 구어 고려말에서 목적격조사가 쓰인 예이다. ‘-으’와 ‘-르’가 대표적이지만, ‘-을’과 ‘-를’도 함께 나타난다.

- (16) a. 산에 흰 옷-으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으 우리 보았구마.  
b. 기레 올라온 네느 구 에레 조고막시 떼서 깔레-르 요롭게 맨드지.  
c. 헌것으로 신-을 맨들어 신고 땡겼어.  
d. 저쪽에서 차-를 타고 밤이며 걸레 오고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목적격조사 ‘-으’와 ‘-르’는 나타나지 않고 ‘-을’과 ‘-를’(또는 ‘-르’)만 나타난다. 다음 문장 (17a)는 대화 자료에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을’이 쓰인 예이고, (17b)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를’이 쓰인 예이다. (18a)는 비-대화 자료에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을’이 쓰인 예이고, (18b)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를’이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목적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같다.

- (17) a. 해가 아직도 많은데 당신이야 무엇-을 좀 잡겠는지 아요?  
b. 그런데 당신이 어대에서 나-를 알았단 말이요?  
(18) a. 총-을! 손에 총-을 잡고 적-을 따리어라!  
b.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었다.

### 3.3. 관형격조사

구어 고려말에서 관형격조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관형격조사가

쓰일 만한 자리는 대부분 체언 연결체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이, -에’ 등과 같은 관형격조사가 보인다.

- (19) a. 그 수날리스까는 내 작은아들-이 딸이오.  
 b. 그 닭-에 알이란 말이겠습지 아무래.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관형격조사 ‘-이, -에’ 등은 나타나지 않고 ‘-의’가 나타난다. 나타나는 빈도는 구어 고려말에 비해 대단히 높은 편이다. 다음 문장 (20)은 대화 자료에서 ‘-의’가 쓰인 예이다. (21)은 비-대화 자료에서 ‘-의’가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관형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같다.

- (20) a. 얼럭 암소-의 새끼는 저 등굴 송아지라고 문서해 치부되었겠지.  
 b. 크면 너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게될 거야.  
 (21) a. 많은 처녀 작가들은 자기들-의 시에 평범한 전통적 어구들을 많이 쓴다.  
 b. 자유-의 불꽃, 머리로 불어 발까지 무장한 강철-의 근육 원쑤-의 검은 피 기타 그것이다.

### 3.4. 부사격조사

부사격조사는 의미에 따라 ‘위치, 방편, 비교’로 나뉘는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sup>6</sup> 구어 고려말에서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에, -에서’가 대표적이다. 문장 (22)에서 보면 ‘-에, -에서’가 쓰이며, 이들 조사의 자유변이형태라 할 ‘-이, -이서’도 쓰인다. 문장 (23)은 현대 한국어의 ‘-에게’에 대응되는 부사격조사이다. 특히 ‘-인데’의 분포가 넓다.

- (22) a. 아무 두 길로 메트르 내리가 내리가 발이 있지므, 벌판-에.  
 b. 오래 아이 놉구마, 새애기 집-에서.  
 c. 그릇에 담아 놓구 상~-이-다 놓구  
 d. 우리 큰집-이서 올 직에 쇠:지 하나 잡아가주고 왔습그.  
 (23) a. 그래 말하지, 내 니-게 장가든다.  
 b. 내일 르스그 내-게서 들을 게 있어, 말을?  
 c. 큰 딸-에게-느 아: 둘이오.  
 d. 해마다 우리-인데-르 왔다갔다 하지.

<sup>6</sup> 부사격을 의미에 따라 ‘위치, 방편, 비교’로 나누는 것과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의미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대 한국어 조사 ‘-에’류를 위치, ‘-으로’류를 방편, ‘-과’류를 비교 등으로 나누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이, -이서’ 그리고 ‘-인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문장 (24)는 대화 자료에서 위치의 부사격이 쓰인 예이다. (25)는 비-대화 자료에서 위치의 부사격이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위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거의 같다.

- (24) a. 그런 담바는 습습하여 입-에 물지도 않습니다.  
 b. 나는 그 녀인-에게-로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나는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c. 내-게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한 십여 마리 잡아 줄 수 있는데.
- (25) a. 전 쏘베트 인민이 조국애호전-에 한글같이 일어났는데 일어나라고 불음-에 있으며  
 b. 시가 가장 좋다고하는 경우-에서 절오막직한 일상적 표어를 연상시킨다거나  
 c. 문화의 습결은 관을 들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민족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구어 고려말에서 방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현대 한국어의 ‘-으로’에 대응하는 것인데, ‘-으르’를 비롯하여 ‘-을르, -을로, -을루, -을라’처럼 형태가 다양하다. 다음 문장 (26)이 그러한 예이다.

- (26) a. 한아버지 늘상 어렵아서 절-으르 못갔스.  
 b. 짝다 로시아식-을르 입었소.  
 c. 지금으느 비단-을로 이불두 땃 채씩 해 줬구마.  
 d. 흙-을루 재빌루 집으 쳐두.  
 e. 침대 그래 널-러 했지.  
 f. 찰-라 하는 떡 있고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방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을르, -을로, -을루, -을라’ 등은 나타나지 않고 ‘-으로’와 ‘-로’가 나타난다. 다음 문장 (27)는 대화 자료에서 방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쓰인 예이다. (28)는 비-대화 자료에서 방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방편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거의 같다.

- (27) a. 배 속에서부터 사냥꾼-으로 난 사람이야 없겠지.

- b. 검사부 심사원 동무, 당신의 기술-로써 땅에서 걸어 다니는 투 기업자, 도적놈, 현잡꾼들은 실수 없이 잡을 수 있으나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날짐생들이야 좀 달은 문제이지오.
- (28) a.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도로 실어가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 b. 너는 연-으로 타는 불길-로써 원쑤의 여원창자 채우리라.
- c. 줄을 맞추어 꿰어 놓은 초보적 정치적 어구를 연상시킨다면 구태여 시를 쓸 필요가 없는줄-로 생각한다.

구어 고려말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에는 문장 (29a) 처럼 ‘-가’가 쓰인다. 이는 현대 한국어 ‘-과/와’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에 대응하는 ‘-마’가 (29b)처럼 나타난다.

- (29) a. 어찌 우리 지우 이 손네 우리-가 같이 있는 줄 아오?
- b. 산달피두야 이렇게 개처르 생긴 게, 개-마 키 작소.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가’와 ‘-마’가 아닌, ‘-과/와’, ‘-보다’가 나타난다. 다음 문장 (30)은 대화 자료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쓰인 예이고 (31)은 비-대화 자료에서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쓰인 예이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비교의 부사격조사는 현대 한국어와 거의 같다.

- (30) a. 당신 자동차가 등굴소를 실지 않고 빈 것이 가겠는데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겠지?
- b. 저기 나가서 나의 자동차 운전수-와 함께 우리 검정 등굴소를 자동차에 실소.
- c. 넌 저새끼-보다 낫다. 머리, 머리를 숙여!
- (31) a. 말들이 어떤 다른 말들-과 연결되면서 형상을 이룬다면 그것은 물론 좋은 것이다.
- b. 쓰딸린 동무가 가르친바-와 같이
- c. 이 편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알마아따에 도착하였다.
- d. 잠들기 전에 분탄을 이겨 불을 덮어놓으면 새벽녘에는 다 타버려 방안은 한지-처럼 추웠다.
- e. 나는 뚝보라를 활줄-같이 채리며, 소리르 부엉새를 놀래우며

### 3.5. 호격조사

호격조사는 구어 고려말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문어 고려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 -야, -(이)시여’ 등의 호격조사가 쓰인다.

- (32) a. 인민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b. 등굴소-야! 새끼를 아니 낳게 되었으니 너는 평안하게 되었다.  
 c. 아 하느님-이여! 왜 하느님께서는 신기한 재간을 가진 바느질꾼인 우리 어머니에게 그렇게도 무정하게 대하셨습니까?  
 d. 만능의 힘을 가진 하느님-이시여, 어찌 구부린 등에 행기를 퍼붓는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게 하십니까?

### 3.6. 마무리

이상과 같이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격조사 형태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문어 고려말의 격조사 형태는 현대 한국어와 거의 일치한다. 이것은 20세기 초기에 한국어, 또는 한국어 규범을 고려말의 문어나 현대 한국어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3)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
주격		-이, (-가)	-이/가, -께서	-이/가, -께서, -에서
목적격		-으/르, (-을/를)	-을/를/르	-을/를/르
부사격	위치	-에, -에서, -게, -인데, (-이, -이서)	-에, -에서, -에게, -게, -보고, -한테, -께	-에, -에서, -에게, -한테, -께, -더러, -보고
	방편	-으르, -을르, -을로, - 을루, -을라	-으로, -으로서, -으로써	-으로, -으로서, -으로써
	비교	-가, -마	-과/와, -보다, -처럼, - 같이	-과/와, -보다, -처 럼, -만큼, -같이, - 치고
호격			-아/야, -이(시)여	-아/야, -이(시)여

한편 격조사는 아니지만, 보조조사 ‘-은/는’과 문장종결조사 ‘-요’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현대 한국어의 보조조사 ‘-은/는’에 대응하는 보조조사를 살펴보자. 구어 고려말에서는 ‘-으/느’가 대표적이며 ‘-은/

는’이 나타나기도 한다.

- (34) a. 빗깔-으 그, 조금 푸르므리 한 것두 있구.  
 b. 한어머니-느 성씨 낄으고 예따 한아바지-느 노학수.  
 c. 나물-은 내 스 잘 기억지 못함구마.  
 d. 우리 이주르 와서 그 해-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집도 없지.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으/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모두 ‘-은/는’으로만 나타난다. 문장 (35)의 대화 자료, 문장 (36)의 비-대화 자료 모두 그러하다. 대화 자료이든 비-대화 자료이든 문어 고려말의 보조조사 ‘-은/는’은 현대 한국어와 같다.

- (35) a. 네가 본 꽃-은 밤새에 나뭇가지에 내린 서리꽃이란다.  
 b. 아직-은 제 정신이오.  
 c. 그런 담바-는 숨숨하여 입에 물지도 않습니다.  
 d. 우리 페르마-에서-는 둥굴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다오.  
 (36) a. 물론 이러한 어구들을 시에 쓸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b. 옳게 리해한다 함-은 충돌과 모순을 방정히 발로시킨다는 것을 의미함이오.  
 c. 부엌-에-는 많은 사람들이 꼭 들어서고 낫선 사람들이 방에서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d. 시-에-는 반듯이 감정적 충동, 개성화한다는 것을 누구던지 다 아는 진리다.

현대 한국어 ‘-요’에 대응하는 구어 고려말의 문장종결조사는 ‘-예’이다. 가끔 (37d,e)처럼 ‘-여, -유’로도 나타난다.

- (37) a. 맏돌에다 가압구마-예.  
 b. 우리르 책으 노나 줍드마-예.  
 c. 원동~서느 거반 그 질그릇이 있드마-예.  
 d. 내 지금 이야기 하지-여.  
 e. 우리르 어디다 실었는지 암두-유?

이에 대해서 문어 고려말에서는 ‘-예’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모두 ‘-요’로만 나타나서 현대 한국어와 같다.

- (38) a. 아버지도 말씀하였지-요. 자신을 발휘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본성이라고...  
 b. 차림새를 보아하니 사냥오신 것 같은데-요. 무엇을 줌 잡었습니까?

- c. 룡답을 하지 마십시오. 로인이 아마 꿈여낸 것이겠지-요.
- d. 당신이 작년에 가져온 저 등굴 송아지 대신에 젓 짜는 얼럭 암 소를 가져갓지-요.

#### 4. 종결어미의 대조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서술형 종결어미(서술형어미)와 의문형 종결어미(의문형어미)를 대상으로 대조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함께 대조해 본다.

##### 4.1. 서술형어미

구어 고려말의 서술형어미는 다음과 같다.

‘-다’, ‘-라’

- (39) a. 만~약에 저쪽에 걸레 가는 사람으느 거기서 받지 아이며 이쪽에 서 아이 받-는-다.
- b. 이게 들은 게 무시긴가 하이꺼더 “경산도에서 오셨다[=오시-엿-다].”는 그 말만 들었소.
- c. 그 집이 칠 형제-라.
- d. 그럴 제에 막중 오래비 다섯 살이-라.

‘-대’, ‘-래’

- (40) a. 노랗고 한 게, 이런 이삭이 달기 있-대
- b. 전기르 밑에 그래 가주고 하는 게-래.

‘-오/소’

- (41) a. 내 몫시 무식하게 말하-오.
- b. 색이 어둡-소. 이 색이 나-오.
- c. 우리 사는 데서예 쇠술기르 물고 우리르 싣고 그 배 녀으로 왔-소.

‘-구마’<sup>7</sup>

- (42) a. 보통 우리 말하는 게 한아버지 한어머니 아이 하-구마.

<sup>7</sup> ‘-구마’는 높임의 서술형어미로 다양한 형태적 분포를 보인다.

- a. -~~ㅁ~~-구마
- b. -습-구마 -~~ㅁ~~-습-구마, -엿-습-구마, -갯-습-구마
- c. -~~ㅁ~~-구마
- d. -갯-구마
- e. -터-구마

- b. 그 안에 자담한 씨들으 가뜩합구마[=하-ㅂ-구마].
- c. 우리 여기 들어와서 아무래 한 삼년 글으 모 읽-었-습-구마.
- d. 단거 어떤가 하이끄드 내 조선말 모르-겠-습-구마.
- e. 그전에는 아무래 원동~서 집에서 만들-었-습-겠-구마.
- f. 수탉이 이른 새벽으며 읊더구마[=우-ㅂ-더-구마].

‘-어’

- (43) a. 내 그런 여르기르 못 봤-어. 아라시아도 없-어, 우리 원동~느 그  
게 있-어.
- b. 높이 높은 집두 있구 낮은 집두 있-어.
- c. 우리 어머니도 나가 까날르 봤어[=과-았-어].

‘-지’

- (44) a. 채소구 뭇시기구 옥수끼구 밭에 강제구 가뜩하-지.
- b. 괴래 그 아들이 글이르구 다 공부 필하고스래 여기서 일하게 댜  
지[=되-었-지].
- c. 괴래 거기 무스기 또 무슨 마이 채소나 뭇 고기나 있-었-겠-지.

접속어미든 것이 기능을 전용하여 서술형어미로 기능하는 것이 있다.  
‘-고/구’, ‘-거든’, ‘-는데’ 등이 그 예이다.

- (45) a. 여기 와서 시장~ 무홀르 치료하-구.
- b. 괴래구서리 또 외나 있으며 외나 가제 가-구.
- c. 까작스탄 들어왔으 직에 한아버지 일흔여섯에 돌아갔거든[=돌  
아가-았-거든].
- d. 지금으 스다 스라주 까페나 레스따란 하-거드야.
- e. 그 행~이 있었으며 말씀 잘 해 드리-겠-는데.
- f. 오십일연도 어저느 쉬 살으 념-었-는데.

이와 같은 구어 고려말의 서술형어미는 ‘-구마’를 제외하고는 문어 고  
려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어미별로 한두 예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6) 문어 고려말의 서술형어미

-다/라:

- a. 자기가 전투적 시로써 방조를 준다는 사상이 이렇게 묘사되-었-  
다.
- b. 원쑤의 여원창자 채우-리-라.

-네):

- a. 이렇게 좋은 곳에 사람이 와서 살지 않을 수 없-네.

- b. 저 등지에 앓은 놈이 암놈이-네.
- 대/래
  - a. 와싸 새끼 혼자선 가지 않겠-대.
- 오/소:
  - a. 훌륭히 되어 나가-오. 아마 전 구역적으로 최우등일 것이-오.
  - b. 난 살고 싶-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싶-소. 그밖엔 아무 것도 상관없-소.
- 어:
  - a. 그러나 속태울 필요는 없-어. 우린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 b. 조국이란 기억이-야. 조국이란 바로 사람들이-야.
  - c. 여기는 술집이 아니-예-요.
- 지:
  - a. 그것을 알게 되면 넌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 b. 모두 씹쓴을 두둔하며 네 할머니가 경솔하다고 욕을 했지[=하-였-지].
- 고/구, -거든, -는데, -니, -니까
  - a. (다 무사하우?) 무사하지 않-고.
  - b. 내게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한 십여 마리 잡아 줄 수 있-는데.
  - c. 가마 구렁에 넣었다가 들켜 날 수 있-다-니.
  - d. 내 꼭 전화를 걸테니까요[=걸 터-이-니까-요].

구어 고려말에서 높임의 서술형어미는 ‘-구마’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문어 고려말에서는 이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이 자리에 ‘-습니다’가 실현된다. 구어와 문어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문어 고려말의 서술형어미는 현대 한국어의 서술형어미와 거의 같다. 다음은 문어 고려말의 ‘-습니다’의 예이다.

- (47) a. 아직은 잡지 못하-엿-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것도 그만 헛방을 놓-앗-습니다.
- b. 그 녀인은 비애와 슬픔 또 전선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전혀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엿-습니다. 나는 그 녀인에게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버니다]. 거기에서 나는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예정-이-버니다].

현대 한국어의 ‘-습니다’뿐만 아니라, 문장 (48)과 같이 감탄의 ‘-구나, -구먼, -군’, 문장 (49)와 같이 약속의 ‘-을게, -오마’ 역시 문어 고려말에 실현된다.

- (48) a. 왜 가만있니? 너 말을 모르-는-구나.  
b. 일본 군사들이 저 산비탈로 막 내려미-는-구먼.  
c. 거 참 잘 됐다[=되-었-군]!  
d. 예서 20킬로 메뜨르를 가면 고아원이 있-다-더-군-요.
- (49) a. 조선말도 배워줄게[=배워주-리게]. 어서 우리하고 같이 가자.  
b. 집으로 돌아올 때 조심히 그 꽃을 뜯어 집으로 가져가-마.

#### 4.2. 의문형어미

구어 고려말의 의문형어미는 다음과 같다.

‘-을까’

- (50) 큰 아들이 공부르 다하고 어떻게 했음으 어머니르 치료할까[=하-르까] 해, 이거 궁리해 냐다구.

‘-은가/는가’

- (51) a. 일리 열다섯 살인가[=살-이-는가]?  
b. 메웃이 어떻게 생겼는가[=생기-었-는가]?  
c. 그래서 거기서 무스그 주-는가?

‘-은지/는지’

- (52) a. 그때 열에덥 살인지[=살-이-는지]?  
b. 어떻게 말했으며 옳게 말하-겠-는지?  
c. 그래 어느 때마 그쪽으르 까작스탄 가머 보-겠-는지?

‘-오/소’

- (53) a. 감자나 영는 거 뭐시라 하-오? 마대락 하-오?  
b. 내 침에 에매르 탕는 줄 아-오?  
c. 낚시지 누개 하-겠-소?  
d. 행님 장물 그릇은 어찌 없-소?

‘-슴두’

- (54) a. 갡사도라든지. 갡사도, 그런 곳 있-슴두? 그 어디멤두[=어디메-르두]? 세베름두[=세베르-르두]? 유즈?  
b. 어 그, 이전에두 이, 군이사르 보내지 않-겠-슴두?  
c. 전쟁~ 곱마 끝이 나지, 구차하지, 어찌 화목하-겠-슴두?  
d. 쉰 킬로 그 무시기 에매 들어갔겠슴두[=들어가-았-겠-슴두]?

‘-어’

- (55) a. 그 술한 사람 어디로 가져 가-겠-어?

b. 내일 뜨스그 내게서 들을 게 있-어?

‘-지’

- (56) a. 새해, 그 답에 어 동지, 어, 그 답에 새해 설-이-지?
- b. 단위라구두 하, 단위 이게 말이 아이 옳-지?

접속어미든 것이 그 기능을 전용하여 의문형어미로 기능하는 것에 ‘-고’가 있다.

‘-고’

- (57) a. 마당~이 있쟤~-고, 있쟤~-고?
- b. 고레인들이 아이-고?

이와 같은 구어 고려말의 의문형어미는 ‘-슴두’를 제외하고는 문어 고려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어미별로 한두 예만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58) 문어 고려말의 의문형어미

-은가/는가/을가:

- a. 그야말로 사랑이란 너무나 단순하지 않-는가? 너무나 로골적이 아닌가[=아니-는가]? 그러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것-이-는가]?
- b. 이와 같은 불운은 우리 사회에서 전형적 현상-이-겠-는가?
- c. 오늘 우리의 새 자랑꺼리가 팔호스원한테 없-을가?
- d. 그러면 문화 휴식 공원에서 만날까요[=만나-리까-요]?

-은지/는지

- a. 그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오/소:

- a. 당신이 무슨 말을 하-오? 누가, 또 어느 사람이 확실하단 말-이-오?
- b. 아니 이 추운 날에 그 찬 물에 어떻게 들어 서자구 그러-우?
- c. 또 무엇이 부족하여 둥굴 송아지까지 가져 가려고 왔소[=오-앗-소]?
- d. 속인들 어찌 타지 않-겠-수?

-어:

- a. 애들이 어딜 갔어[=가-왔-어]?
- b. 일본 군사 보이지 않-아-요?
- c. 남편이 배우면 어떻단 말-이-야? 그 사람이 로씨야사람인데는 또 어떻단 말-이-야?
- d. 무슨 민족-이-야?

-지:

- a. 당신 자동차가 동굴소를 실지 않고 빈 것이 가겠는데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겠-지?
- b. 그럼 네 할아버지는 왜 로씨야사람-이-지?  
-고/구, -라
- a. 바른 대로 말하라-구?
- b. 응, 누구를 망해우자-구?
- c. 사흘이-라?

구어 고려말에서 높임의 의문형어미는 ‘-습두’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문어 고려말에서는 이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습니까’가 실현된다. 구어와 문어의 가장 큰 차이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문어 고려말의 서술형어미는 현대 한국어의 서술형어미와 거의 같다. 다음은 문어 고려말의 ‘-습니까’의 예이다.

- (59) a. 어찌 구부린 등에 행기를 퍼붓는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게 하십니까[=하-시-브니까]?
- b. 어머님이 계셔야 하는데 왜 기적을 낳는 그 재능에 과해지는 벌금과 세금은 그렇게도 많-습니까?
- c. 우리 어머니 얼굴에서 절망의 쓰라린 미소가 사라지게 하여 줄 수는 없-습니까?

현대 한국어의 ‘-습니까’뿐만 아니라, 의문형어미 ‘-으냐/느냐, -니’ 역시 문어 고려말에 실현된다.

- (60) a. 몇 명의 간첩과 변절자가 있다고 해서 온 백성을 잡초처럼 뿌리채 뽑아 던지는 법이 어데 있단 말-이-냐?
- b. 마구 치솟는 연정에 부대껴서 머저리로 미남자로되어 보이-느냐?
- c. 야, 좀 기다려라. 너 잊어 먹-었-니?
- d. 잘 있-었-니? 너 머 야영소에서 도망쳤니[=도망치-었-니]?

#### 4.3. 마무리

이상에서와 같이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종결어미 형태는 특히 높임의 서술형어미와 의문형어미의 형태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문어 고려말의 종결어미 형태는 현대 한국어와 거의 일치한다.<sup>8</sup> 이것은 20세기

<sup>8</sup> 높임의 서술형어미와 의문형어미뿐만 아니라, 높임의 명령형어미와 청유형어미의 경우에도, 구어 고려말에는 보이지 않는 어미들이 문어 고려말에 나타난다. 이들은 현대 한국어와 같은 형태이다.

초기에 한국어, 또는 한국어 규범을 고려말의 문어나 현대 한국어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의 서술형어미와 의문형어미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61)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의 종결어미

	구어 고려말	문어 고려말	현대 한국어
서술형어미	-다, -라, -대, -래, -오/소, -구마, -습니다, -어, -지, -고/구, -거든, -는데	-다, -라, -네, -대, -래, -오/소, -습니다, -구나, -구면, -군, -을게, -오마, -어, -지, -고/구, -거든, -는데	-다, -라, -을래, -을라, -네, -으이, -을세, -을걸/는걸/은걸, -오오/소 습니다, 습디다, -구나, -구면, -군, -구려, -오마, -을게, -음세, -어, -지, -거든, -는데
의문형어미	-을까, 은가, -는가, -은지, -는지, -오/소, -습두, -어, -지, -고	-으냐/느냐, -니, -은가/는가/을가, -은지/는지, -오/소, -습니까, -어, -지, -고/구, -라	-으냐, -니, -을래, -나, -은가/는가/던가, -을까, -오오, -소, -습니까, -습디까, -어, -지

## 5. 맺음말

이 글은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구어와 문어가 따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들 각각의 문법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법 특징은 격조사와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현지 조사한 구술 자료와 현지 신문 “레닌기치”에 실린 문학 작품과 기사, 논설문 등이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맺음말로 삼는다.

- 
- a. 높임의 명령형어미  
 룡담을 하지 마-십시오.  
 큰아바이, 누가 옳은지 말 좀 해 주-시오.
- b. 높임의 청유형어미  
 여간 피차 알고 지냅시다[=지내-버시다].  
 심사원 동무, 가려면 갑시다[=가-버시다].

첫째, 고려말의 두 모습, 즉 일상언어인 구어와 격식언어인 문어가 함께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고려말이 구어 고려말이라 한다면, 글을 쓸 때와 공식적이거나 격식적인 대화를 할 때 쓰는 고려말이 문어 고려말이다.

둘째,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격조사는 공통된 점도 있으나, 차이 나는 점도 있다. 주격조사에 ‘-이’만 쓰이는 점, 목적격조사에 주로 ‘-으/르’가 쓰이는 점, 관형격조사가 거의 쓰이지 않는 점, 비교의 부사격조사 ‘-가’가 쓰이는 점 등이 구어 고려말의 특징이라면, 문어 고려말에는 주격조사에 ‘-이/가’가 쓰이고, 목적격조사에 ‘-을/를’이 쓰이고, 관형격조사 ‘-의’가 쓰이고, 비교의 부사격조사 ‘-과/와’가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어 고려말의 특징은 현대 한국어의 격조사와 거의 같다.

셋째, 구어 고려말과 문어 고려말의 종결어미 역시 공통된 점도 있으나, 차이 나는 점도 있다. 높임의 서술형어미에 ‘-구마’가 쓰이는 점, 높임의 의문형어미에 ‘-슴두’가 쓰이는 점이 구어 고려말의 특징이라면, 문어 고려말에는 높임의 서술형어미에 ‘-습니다’가 쓰이고, 높임의 의문형어미에 ‘-습니까’가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구어 고려말에 나타나지 않는 의문형어미 ‘-느냐, -니’가 문어 고려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문어 고려말의 특징은 현대 한국어의 종결어미와 거의 같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고려말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현장에서 고려말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에 정성을 다해 도와 주신 박 넬리 교수께 고마움의 마음을 이 논문에 담아 드린다.

### 참고문헌

1. 권재일(2010), <중앙아시아 고려말의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3. 김필영(2004),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 출판부.
4. 김필영(2008), “중앙아시아 고려인 소설에 나타난 구어체 표현”,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5. 박넬리(1991), “On Korean dialects in the USSR”, <이중언어학> 8, 한국이중언어학회.
6. 박넬리(1997), “Besonderheiten der Kasusformen des Yukchin dialektes des Koreanischen in Kazachstan”, <국어학논집> 3, 태학사.
7. 박넬리(2005),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Казахстане: пробл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ты.
8. 박넬리(2008), “고려말의 규범(MOOD를 중심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고려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